

시선

사설

바닥으로부터의 의제 수렴 혁신위 성과 좌우할 것

지난 3월 출범 예정이었던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춰진 오늘(11일) 정식 출범한다. 우리신문이 지난 제1602호 사설에서 언급한 바 있듯, ‘혁신’을 키워드로 삼고 있는 이 조직은 향후 1년 간 교수, 학생, 직원 사회의 다양한 영역대를 포괄하며 대학 내의 전반적인 문화, 인식, 구조 등을 바꿔나가게 될 전망이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아젠다, 그리고 이슈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주어진 혁신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아젠다일 것이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논의에 부칠 주요 주제의 목록, 즉 아젠다를 갖기 마련이다. 아젠다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을 감안하면, 이 아젠다 세팅은 혁신위의 향후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위의 아젠다 세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흔히 ‘조직의 혁신’을 논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의하달(上意下達)식의 의사 흐름이다. 이것은 조직의 경영진 입장에서 매우 수월한 방식일뿐더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몇몇 천재적 리더십의 강력한 혁신 사례들 덕분에 일종의 후광효과까지 지니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 ‘조직의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품의 성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제 구성원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대학 내의 문제를 될 경우 이 ‘후광효과’는 위험한 신기루가 될 수 있다. 지난 사설에서도 얘기했듯 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란 결국 그 구성원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배제될 경우 그 혁신은 삶이 아닌 구호에 머무르게 된다. 각 단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도출된 아젠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논의되든 현실과 유리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 내의 혁신이, 제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밀하게 이뤄지는 하의상담(下意上達)의 성격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 내에 존재해온 많은 위원회와 협의체들을 상기해볼 때 이번 혁신위 역시 대표성을 띠는 몇몇 위원들이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 사안들이 중심 인건화 되어 혁신 작업의 요체를 이를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혁신위는 각 구성원 위원회에서의 의견수렴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나 상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의 확립 등 다양한 언로를 보장하여 구성원들이 ‘우리가 만들어 가는 혁신’이라는 혁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수렴을 통해 각 구성원의 의견들이 혁신위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면, 혁신위가 세워놓은 ‘2019년까지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이정은

이주의 주제 -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학본부 표절·학장·방관, 그리고 쌓이는 불신

최재원 (정기자)
jankin1997@khu.ac.kr

‘호텔관광대학(호관대) 변정우 학장의 논문 표절’이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2015년 2학기 우리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결과, 변 학장이 2010년 2월 외부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표절로 판명됐다. 이후 서면공고를 통해 해당 논문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제 와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일까. 지난달 29일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지난해 변 학장의 논문표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대학본부 측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조기퇴진에 따른 변 학장 개인의 불명예가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연말 인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구두약속을 남겼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학기가 시작됐지만 변 학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대자보를 붙여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서울캠 교수의회 측의 대자보 게시에, 호관대 교수들은 명예훼손 등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해당 글에 따르면 ‘표절 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서면 경고를 받아 완료된 사안’이라고 한다. 또한 ‘교수 개개인이 스스로 지난 일들을 겸허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

제는 우리 모두가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는 입장도 나와 있다. 즉, ‘다 지난간 일에 굽어 부스럼을 내느냐’는 내용의 자보가 붙은셈이다.

기자는 일련의 ‘대자보 전쟁’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전문기관의 판단’이 갈등 상황에서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논문표절 건과 이후 처리를 담당했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전문기관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그 ‘원위’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이 같은 무반응은 마치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대학본부는 왜 ‘기다려 달라’고 약속했는가. 일부 인사의 ‘대기 요청’ 한마디에 총장 승인까지 완료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벼워졌다. 당시 변 학장에 대한 심의와 징계결과가 합당했다면 ‘기다려 달라’는 말보다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한 후속 조치가 나왔어야 할 것이다.

일부 대자보에서는 교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짚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유감스러워해야 할 부분은 교수와 대학본부, 나아가 학교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하락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라는 번듯한 기관을 세워놓았음에도, 그 안에서 끝을 내지 않고 사태를 미뤄온 대학본부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했다. 굽어 부스럼 낸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애초에 가려운 곳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국제캠 운행 버스기사 학생 승객에게 폭언 및 승차거부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3. 28. ~ 04. 0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 중앙도서관(중도) 좌석배정 모바일 어플의 좌석예약기능이 지난 1일부로 사용 중단됐다.(중도 좌석예약 시스템 개선 계획, 예산 확보문제로 실현여부 ‘불투명’/대학주보 온라인, 2016.4.6) 중도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를 공고했으며 추후 시설과 어플 개선 뒤 예약기능을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 어플의 기능은 기존 좌석이용자가 있음에도 예약 가능 좌석으로 표기되거나 관내 좌석발급기에 예약된 좌석이 표시되지 않는 등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도 사서과장소영 과장은 “2006년에 설치된 게이트 등 제반 시설과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 미비로 완벽한 지원

이 불가했다”라며 “예산 편성을 충분히 받으면 게이트를 비롯해 도서관 사석화와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 학생증과 무관하게 각 좌석에 단말기를 설치해 좌석에서 퇴실과 연장처리를 할 수 있는 NFC나 블루투스 비콘 등의 방식도 검토 중이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는 국제캠 교내 버스 기사들의 태도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국제캠 교내 운행 버스 기사들의 폭언과 학생과 승객에게 서로 다른 태도를 비판하며 최근들어 더 심해진 것 같다 는 글(#경희숲_13291, 2016.4.5)과 하루에 한 번은 욕설과 폭언이 들렸다는 경험담, 학생을 무임승차 범죄자 취급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아전 놀랍지도 않다는 글(#경희숲_13293, 2016.4.5)이 이어졌다. 매년 종학이 항의해도 문제는 반복되며 한 줄 서기 캠페인도, 임시정류장도 모두 실패했으니 대책이 무엇이겠느냐는 글도 있었다.(#경희숲_13292, 2016.4.5) 댓글 역시 ‘욕하는 기사님 신고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못 봤는데 최근 유독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다’, ‘난폭운전에 무정차 통과까지 기사님들 패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캠퍼스를 수놓은 벚꽃을 즐기는 학생들의 글도 많았다. ‘서울캠 문과대 뒤풀 벚꽃은 그늘진 환경 덕분에 정문과 본관 인근의 다른 벚꽃보다 1주일 늦게 핀다’며 ‘지는 벚꽃이 아쉽다면 문과대 뒤 벤치에서 늦은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글(#경희숲_13294, 2016.4.5)은 약 3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 글에는 ‘문과대 뒤풀’, ‘벚꽃을 더 볼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달렸다. 한편, ‘공대 앞은 벚꽃이 안 핀다’는 슬픈 댓글도 볼 수 있었다. ‘학교에 식물생식기 하나 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글(#경희숲_13339, 2016.4.7)은 597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댓글로 ‘나의 낭만이 무너졌다’, ‘이 분 배우신 분’, ‘겹벚꽃은 수술이 앞으로 변한 경우이니, 불구자입니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글쓴이는 (#경희숲_13278, 2016.4.4) ‘수업 끝나고 혼자 평화의 전당부터 미대까지 산책을 했다’며 ‘경희대 오길 잘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316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휴학중동마저 없어지는 풍경’, ‘자전거타고 한 바퀴 돌면 좋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우리의 미래를 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맡기지 말자

세시봉

이성민 (뉴스타운)



지난달 31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번에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후보자들의 유세는 막장 드라마다.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명 ‘읍소작전’이라 불리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지난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명석을 깔고 공천 파동에 대한 사죄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일 100번의 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뿐만이 아니다. “용서해 달라”, “정신 차릴게요” 등 일회성 발언을 남발하며 유권자들에 감정으로 호소하는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후보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죠’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인 4월 12일까지 계속될 판이다. 당연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선거철에만 작아지는 정치인 보지않기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지난 18대 총선을 보면 20대 초반과 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32.9%와 24.2%로 전 연령 중 가장 낮았다. 19대 총선 역시 20대 전,후반의 투표율은 각각 45.4%, 37.9%로 20대 후반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18대 총선보다 19대 총선의 젊은 층 투표율은 올랐으나 그래도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은 동일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 제20대 총선 재외투표에 6만 3,797명이 참여해 4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보다 4.3%가 줄어든 수치다.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중 정치적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에선 지난 총선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후보가 의원이 되자 유권자를 무시하는 듯한 사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선거철에만 국민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선거 유세 기간에만 작아지는 정치인을 보지 않기 위해선 그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특히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그들은 젊은 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앵커는 ‘투표율을 높인다면 선거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의 미래를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만 맡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말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미래에의 책임이란 투표에의 책임과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4년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두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총선에 참여해 소중한 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하자.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동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